명품 구입 '시즌오프' 노려라

(Season Off

하나쯤 꼭 가지고 싶은 명품, 비싼 가격에 구입을 망설였다면 시즌오프(Season Off)를 노리면되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직구, 병행수입 등 명품을 비롯한 해외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는 채널 이 다양해졌지만 아직도 백화점 시즌오프 행사를 이용해 명품을 구입하는 알뜰 명품 쇼핑족들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즌오프란 의류업체에서 봄·여름 및 가을·겨울 시즌의 신상품 소진을 위해 진행하는 가격인하 및 세일을 말한다.

해외패션 브랜드들은 주로 매년 5월, 11월 두 차 레 시즌오프를 진행하며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해당 시즌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가격이 저렴한 명품 해외직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수백 만원대의 고가 명품 구입을 배송이나 진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온라인 해외직구로 하기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해외패션 브랜드 5·11월 진행

위험 부담 없이 저렴하게 구입

롯데백화점 광주점 MCM 시작

브랜드별 순차적으로 행사 가져

실제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최근 2년 간(15~16년) 해외패션 시즌오프 기간의 매출을 분석해본 결과 한 해 해외패션 전체 매출에서 시 즌오프 기간의 비중이 23%이며 2년간 매출 또한 2% 신장률을 보이며 매출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미라 해외패션 파트리더는 "명품을 비롯한 고가의 해외패션 상품의 온라인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해외직구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세대나 진품보증 및 A/S 등의 서비스를 위해 백화점에서 직

접 구입하려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며 "롯데백화점에서도 브랜드별 해외패션 시즌오프 진행을 통해 고객들에게 쇼핑 기회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8일 MCM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외 명품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부터는 비비안웨스트우드, 오일릴 리, 막스마라 등이 행사에 돌입했고, 지난 23일 일본명품 브랜드 바오바오가 정식 오픈한다. 26 일부터는 프라다, 미우미우, 페라가모, 에트로, 버버리, 버버리 칠드런 등이 시즌오프 행사에 참 여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규원 해외패션Floor장은 "해외패션 브랜드 시즌오프는 브랜드별로 행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은 일정 확인 후 매장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인기 상품은 행사 초반에 소진되는 만큼 미리 계획을 갖고 쇼핑준비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빵 맛있게 구워주는 '르꼴뜨'

24일 광주신세계 관계자가 빵을 노릇하게 구워주는 일본 가 전 르꼴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치솟는 닭고기·계란값…정부 약발 안 먹히나

수입운송비 지원·비축물량 확대 불구 생닭 가격 ↑, 계란 1판 1만원 재등장

농식품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와 계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운송비 지원, 수입국 다변화, 정부 비축물량 확대 공급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2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육계 산지 가격은 1kg에 2534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1256 원보다 101.8% 급등했으며 전월(2091원)과 비교해 도 21.2% 올랐다.

닭고기 산지가가 이처럼 오른 것은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닭과 오리 가 대거 살처분된 데다 AI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이 동 중지 조치로 제때 병아리 입식이 이뤄지지 못해 육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I 발생 직후 뚝 떨어졌던 닭고기 수요는 최근 황금연휴와 본격적 행락철 등을 맞아 거의 정 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런 영향으로 수급불안 현상이 심화하고 산지가 가 급등하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 트 3사는 최근 닭고기 소비자가를 일제히 올렸다.

이마트는 지난 18일 5980원이던 백숙용 생닭(1 kg) 가격을 6980원으로 1000원이나 인상했고, 롯데 마트도 같은 날 하림 생닭(1kg) 가격을 5900원에서 6900원으로 올렸다.

홈플러스 역시 같은 날 백숙용 생닭(1kg) 가격을 5790원에서 599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90원에서 5990원으로 200원 인상였다. 계란 가격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 판에 8000원을 넘어섰던 계란 평균 소매가 (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정부의 발표 이후 약간 하락하는 듯하다가 22일 다시 8040원으로 반등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선 것은 AI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9일 이후 처음이다.

AI 피해가 특히 컸던 서울·수도권 지역의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 을 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AI의 전국 확산으로 계란값이 무섭게 오르던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사상 최초로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기로 하는 '깜짝 카드'를 꺼내들자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금은 AI가 사실상 종식돼가는 상황인데도 태국과 덴마크산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 입점 성공 교육 받으세요"

aT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생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 원(원장 김장래, 이하 교육원)은 오는 29일~30일 경기도 수원시 농식품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성공전략'과정의 교육생을 모집 하다

이 과정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고자 하지 만, 유통 업체의 구조나 진출 방법, 절차, 공정거 래 대응방법 등에 관한 전략이 부족한 농산물, 식 품제조 및 가공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교육 과정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련 대응방법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상품화 전략 ▲대형유통업체 입점 성공사례로 구성됐다.

교육에서는 현직 대형유통업체 실무자가 직접 강의에 나설 예정이며, '무지개 방울토마토'로 대 형유통업체 입점에 성공한 업체 대표가 입점 과정 에서의 경험담을 공유하여 교육 참가자들에게 실 무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농식품 창업자 등으로 선 착순 모집 중이며, 1박2일 동안 총15시간 진행되 는 이번 과정의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1만 6천 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31-400-35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매달 4번째 주말에 즐기는 와인파티'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오는 26일부터 매달 4 번째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이 호텔 라 플레 이스 레스토랑&바에서 7종의 카나페와 함께 무 제한 와인을 와인을 맛볼 수 있는 '매달 4번째 주 말에 즐기는 와인파티'(Monthly Wine

Weekend)를 진행한다. 한 명당 4만4000원을 내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수 있고,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투숙객에게는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이 호텔은 5~6월투숙 고객 대상으로는 '위캔드 바비큐 디너'와 '로비 라운지2+1 세계 맥주 페스티벌'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한다. 문의 062-610-70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마트, 대형마트 최초 인도산 망고 판매

동남아산보다 당도 높아 수입과일 원산지 공식 깨져

이마트는 24일부터 대형마트 최초로 인도산 망고를 판매한다. 지난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망고의 95%는 필리핀과 태국산이었으나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인도산 망고를 들여오기로 했다.

위에 인도선 정보를 들어오기도 했다. 이마트에서 망고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5% 증가하는 등 매년 두 자릿수 매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이마트 수입과일 중 매출 11위였던 망고는 지난해 6위까지 올라왔다.

일반적으로 망고 주요 산지는 동남아로 알려졌지 만, 망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이다. 2014년 기준 세계 망고 생산량의 40%가량을 인도 가 차지했다.

이마트는 인도산 망고는 동남아산에 비교해 평균 당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산 망고는 5~8월이 제철이어서 태국에서 우기로 망고가 수확되지 않는 6~8월에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수입국 다변화로 수입과일 원산지 공 식이 깨지고 있다.

이마트에서 바나나는 과거 필리핀산의 비중이 90~95% 수준에 달했지만, 올해부터는 남미 에콰도르 바나나가 수입되고 있다. 미국산 오렌지를 대신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스페인산 오렌지가 들어

체리의 경우에도 미국산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뉴 질랜드산이 공급되고 있다.

/연합뉴스



